

사회

[단독] '헌혈왕' 중환자실 보낸 헌혈의 집...금지약물 수혈 사고도 / 풀버전

⌚ 3분 입력 2026.10.08 21:00



이자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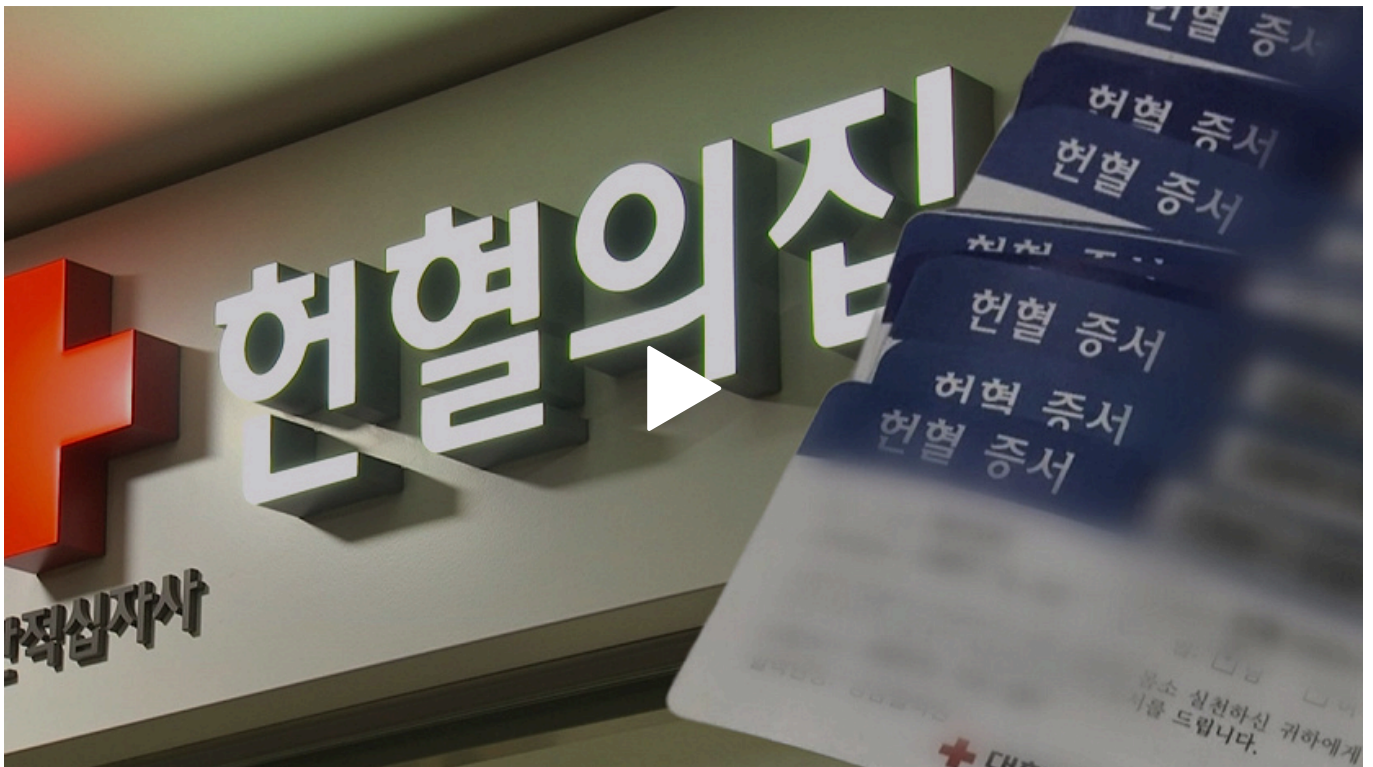
외 1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JTBC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앵커]

헌혈을 100회 이상 하면 '명예장'이라는 유공장을 줍니다. 나눔에 대한 사회적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명예로운 기록을 훌쩍 넘어 126번 혈액을 기증하고, 127번째 헌혈에 참여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량의 항응고제가 몸 안으로 들어간 건데 담당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또 다른 헌혈의 집에서 똑같은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혈을 마음먹고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먼저 문진을 하고,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받게 됩

니다.

[주사 치료 특별히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입술이 떨리거나 얼얼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꼭 얘기하시고요.]

지난해 5월, 한 50대 남성이 헌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즉시 채혈을 멈췄지만 10초 넘게 강직성 경련을 보이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부정확하고 호흡도 이상했습니다.

기관 내 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에서 닳새, 일반 병실에서 열흘을 보낸 뒤에야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담당 간호사가 '항응고제'와 '식염수'를 헛갈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뽑아낸 혈액이 굳지 않도록 몸 밖에서 항응고제를 섞는데, 줄이 잘못 연결되면서 134cc의 항응고제가 몸 안으로 곧장 들어간 겁니다.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헌혈하다 위험에 처했던 이 남성, 그간 126번 피를 기증했던 '헌혈 왕'이었습니다.

중환자실까지 다녀오자 더 이상 헌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안 오시는 거죠?} 못 하는 거죠. 헌혈 못 하세요.]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서울의 또 다른 헌혈의 집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으로, 헌혈 2분 만에 구역질을 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 채혈을 중단했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적십자사가 일선에 사례를 공유하거나 주의하라는 공지를 내리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적십자사는 "헛갈리는 일이 없도록 현재는 식염수와 항응고제 포장재 모양을 바꾼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혈뿐 아니라 수혈 과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면 4주간 헌혈이 금지됩니다. 수혈하면 '태아 기형'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헌혈자가 그 약을 먹고 헌혈을 했다가, 곧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폐기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60대 여성에게 수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가서 전산 처리가 누락된 겁니다.

이어서 윤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헌혈한 20대 남성은 그날 혈액관리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 전에 여드름 치료제를 먹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다"며 "혈액이 폐기되는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아마 폐기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남성이 먹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은 복용하면 4주간 헌혈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을 교란해 임신부의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기됐어야 할 이 혈액, 다음날 60대 여성에게 수혈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전산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외부 출장과 행사 참석으로 담당자들이 부재해 메시지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수혈받은 60대 여성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제의 혈액을 수혈받은 사실은 적십자 내부 지침에 따라 수혈받은 여성에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 : 피가 부족하다면서 국민에게 헌혈을 장려하는 적십자사가 정작 혈액 관리 소홀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복지부에 사고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취재한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26번 혈액을 나눠 준 '헌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는 헌혈을 못 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공패까지 여러 차례 받은 분이었습니다.

헌혈을 30번 이상 하면 은장, 50번 이상은 금장, 100번 이상은 명예장을 받는데 126번 한 이 헌혈자는 이 세 개를 다 받았습니다.

건강을 희생해 가며 선의로 헌혈을 해 왔는데 도리어 생명을 위협받게 된 겁니다.

[앵커]

항응고제와 식염수를 헛갈려 벌어진 사고로 파악이 됐는데, 헛갈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항응고제와 식염수가 담긴 비닐 팩의 디자인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적십자사의 설명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연결돼서 소량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 되지 않는 약물이고 취재진이 직접 헌혈을 해 봤을 때도 자세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헌혈의 집 관계자 : {항응고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혈(혈액을 돌려줌)될 때, 그거에 대해서 주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데, 조금 민감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헌혈할 때도 간호사들이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사고 당시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착오로 몸 안으로 많은 양의 항응고제가 들어가면서 저칼슘혈증이 왔던 겁니다.

[앵커]

이 뉴스를 보시고, 헌혈을 꺼리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적십자사가 더 철저히 하겠다고 전해왔죠?

[기자]

오늘 기준으로 전국 혈액 보유량은 적혈구 기준, 3일 치 뿐입니다.

취재진이 헌혈의 집에서 만난 시민들은 "부작용이 있다지만 바로 조치해 줄 거고 안내도 꼼꼼하게 해 줘서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선의의 기증자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십자사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주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헌혈할 땐 팔이 저리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려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정재우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곽세미 PD 정유리 조연출 김지후 영상디자인 최석헌 이정희]

뉴스룸 단독보도

공지사항	>
다시보기	▼
분야별 뉴스	▼
이슈	▼
연재/코너	▼
오늘의 기자	랭킹
정정/반론	제보
RSS	시청자 게시판

공지사항

미운말 신고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소개

사이트맵

방송광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편성규약

기사배열기본원칙

JoongAng Group

제이티비씨(주)

대표이사 : 전진배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연락처 : 02-751-6000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39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7-서울마포-0896

기사배열기본원칙책임자 : 남궁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지현

등록번호 : 서울 아54734

등록일자 : 2023-03-09

JTB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AI 학습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